

社說

예리한 역사의식으로 양심의 등불 되길

제39회 학위수여식에 부쳐

무엇인가 결실을 이룬다는 것은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이다. 더구나 학문 영역에서 각고의 연마 끝에 그 성취를 인정받고 한 시기를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 각각 학위의 성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것에 이르는 과정은 결코 험난하며 때로 벅찬 것이다.

회고컨대 그 "전쟁"이라고까지 불려지는 입시 지옥을 뚫고 경희인이 된 감각의 순간으로부터 영광의 오늘까지를 되돌아 볼때 실로 깊은 감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주변에는 그때의 친구가 이미 자리를 달리했을 경우도 있다. 더구나, 오늘의 자기가 4년전의 자기의 생각과 모습에서 얼마나 크게 달라져 있는가를 생각하면 격제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환희가 있었는가 하면 좌절과 고뇌에 시달리기 몇날이던가! 그렇게 비바람 겪으며 우리는 이처럼 우람하게 성장하여 있는 것이다. 5공의 위압도, 6공의 격변속에서도 우리는 역사의 진로를 응시하며 행동하는 지성이 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현실참여와 강의실 사이의 선택, 화염병과 최루탄 사이의 기로에서 우리는 얼마나 역사의 진통을 피부로 절감해야 했던가! 졸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은 졸업식날 더욱 실감케 된다. 이같이 뜻깊은 날에 몇마디 당부말씀을 하고자 한다. 우선 뚜렷한 역사의식을 갖고 살아달라는 것이다. 불확실성과 혼돈의 시대에 예리한 역사의식이야말로 방향타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인간과 역사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갖는데 정진해주시기 바란다.

다음으로는 쉬지않고 배우며 연마하는 사람이 되어주길 당부한다. 배움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다. 배우며 사색하고, 사색하고 실천하는 삶이 요청된다. 항상 준비하는 사람에겐 시련은 단련의 과정일 뿐이며 기회는 언제나 오게 되어있다. 자기의 맡은바 임무와 역할에 충실하며 사람의 실현자가 되고, 자기분야에서 뛰어난 일꾼이 될 것을 권하고 싶다. 소임을 다하는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며 그것을 통하여 사회와 이웃에 봉사한다. 직업에 귀천이 있을 수 없고 다만 삶속에서 역할의 분담이 있을 뿐이다.

또한, 이 부패와 이기심이 만연한 사회에서 양심의 등불이 되며 국가의 중심을 지키는 이성이 되어주길 당부한다.

공자도 이득을 보면 의(義)를 생각하라고 했거니와 청렴과 무욕이 가져다 주는 참 기쁨이 무엇인지도 터득하여 순결한 양심을 보존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모교에 대한 높은 긍지를 갖고 경희정신의 실현자가 되어 달라라는 것이다. 경희의 상징인 사자와 목련화가 말하듯이 열경을 품는 투철한 창의정신과 협동력, 굳건한 진취적 기상을 가지고 문화창조와 삶의 평화정착에 기여 해주기를 바란다. 여러분들은 경희가 내보내는 사회의 역군이다.

넓은 대대로 나가는 여러분의 장도에 무한한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부패한 정권의 위기의식 표현

학생운동권 폭력단체 규정을 보며

국회의원 뇌물유사사건과 수서지구 특별분양사건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골을 더 깊게 패이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와중에도 부패하고 부도덕한 정치와 민중들의 삶의 고통에 대한 학생들의 항의시위, 실천행동 등을 범죄행위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세력을 범죄단체로 규정하고 나가는 논조를 본다.

치안본부가 "앞으로 극렬운동권 학생들을 일반 조직폭력배와 같이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엄단한다"는 발표가 그것이다. 더욱이 학생이란 용어조차 사용하지 않고 일반 조직폭력배를 처럼 '00파'로 호칭, 국민들의 동정심유발을 막겠다고 한다. 기존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그 조처의 철폐와 법률적용의 형평을 제기해오고 있으나 어처구니 없게도 이제 형법도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

기실 최근에 있었던 대구 경북대 학생들의 파출소 습격과 경찰청기 난동사건을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구분하기 어렵다. 집회를 최루탄과 연행으로 봉쇄하면 학생은 항의 시위를 벌이고 경찰은 학생들에게 총기를 겨누면 학생들은 공포탄을 쏘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는 극한상황이 계속돼 온 것이었다. 이는 폭력행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차이로 보일 수 있다.

법적외의 전쟁선포 이후 많은 민중과 대학인들은 전쟁의 대상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보여왔다. 진정 대상이 되어야 할 사회, 정치 범죄는 통계 수치가 말해주듯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대다수 민중진영과 민족민주운동에 돌리고 있다. 기가 막히는 현상이다. 사회민주화와 역사적 정의(正義)를 위해 헌신하는 학생들에게 형법과 폭력에 관한 법률로 묶어매려는 발상은 철저히 마땅하다. 왜냐하면 이를 역사와 민중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년초부터 터지기 시작한 시리저리 사회부정 부패에서 가장 심각하게 노출된 정치권의 불신임을 정부는 국민들 서로간의 불신감조성으로 은폐하려 하고 있다. 어느 시인은 자기 혁명으로부터 시작해 사회를 개혁하자고 하는 하면, 어느 인사는 돈때문에 인신불성이 된 정치인, 재벌, 사회지도층을 폭우탕에 내다오기를 권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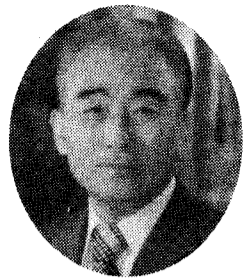
타락한 정치와 밀바다로 추락한 민중들의 삶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묻는 행위가 집단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부합한다면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해 모든 반대세력을 범죄자로 몰아부치는 현정권의 작태는 말기적 중상이다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대학에서는 학문·사상의 자유와 함께 모든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생의 현실참여와 학생운동은 소위 '과격·폭력·체제전복운동'을 말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이의 정당성을 역사적·실질적 예는 지난 4.19의거와 유신체제하의 학생운동이, 걸어온 길을 통해 알 수 있다. 오히려 자신의 정권위기를 체제의 위기로 비화한다면 사회안정을 빌미로 광주시민등 무고한 민중들을 학살해온 정권에 그 책임이 있을 것이다. 비록 만가지를 인정해 현정권이 진정한 사회안정과 범죄적결을 위한 범죄전쟁'을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가진자들의 편에선 노동운동단위, 민중단위가 현실적으로 나타난 마당에 이번 학생운동 세력의 범죄집단화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는 범죄전쟁의 실질적인 대상이 되어버린 민중들과 범죄자소굴로 치부될 우려가 있는 대학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민중들은 이를 비리사건과 정치부패에서 받은 충격과 허탈함에서 벗어나 철저한 심판을 내릴 것이며, 대학도 무기력을 벗어던지고 그릇된 현실과 정치권의 범죄행위에 대한 단죄를 내려야 할 것이다.

학위수여식 총장축사



조영식 총장

여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촌이 세기적 변혁기의 와중에서 變身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지 1년도 못되어 독일이 통일되는 것을 보았고 소련과 동구에서의 개혁과 개방의 바람이 이념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았으며, 또 전쟁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함과 동시에 새로운 포부와 이상을 안고 사회로 진출하는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한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의 학창생활에서 경희의 3대정신을 몸소 배우고 익혀왔습니다.

賢하면 통하고, 생각하는 그속에서 천하가 얻어진다라는 '창의적인 노력', 하면 된다, 해내야만 한다는 '진취적 기상', 그리고 만사를 긍정적·능동적 시각에서 바라보며 협동단결하여 해내면 불가능은 없다는 '건설적인 협동' 정신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참된 이 나라·이 사회의 양심으로 또 국가의 이상으로 자처하면서 조국이 직면하고 있는 총체적 난국과,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신질서 개편에도 동참하고 기

리나라는 어떠한가?
'동방의 예지국'으로 자처해 왔던 우리에게 범죄에 대한 전쟁선포란 웬말입니까?
근간, 사회를 온통 떠들석하게 하고 있는 뇌물유·부정입학·수서사건을 위시한 각종 비리와 정파간의 분열과 파생·국민상호간의 견장을 수 없는 불신과 불화,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을 총체적 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모두가 격정만 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서로 욕하고 비판하며 네 탓이라고만 미루고 가

창의적 노력·진취적 기상·건설적인 협동

"영광된 조국미래를 준비할 때다"

운명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

오로 물들어 왔던 유럽이 '하나의 유럽'을 지향하며 경제와 안보의 협력체제를 지나 정치통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 같은 통합지향적 신화해의 시대에 있어 세계 각처에서 분열지향적인 소수민족의 독립운동과 또 이라크와 같은 반평화적이고 불법적인 전쟁이 도발되고 있는 것을 볼때 절대호기는 절대포기를 수반한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국제환경속에서 우

만히 앉아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우리는 내 조국의 총체적 난국 해결에 뛰어들어 또 국민이 손잡고 경희의 정신으로 이 난제를 푸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賢하면 통한다', '생각하는 그곳에서 천하를 얻는다'고 했듯이 '하면 된다', '해내야만 한다'는 정신으로 서로가 화합하고 단결하여 건설적인 생각으로 해가면 불가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결정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미

국을 비롯한 다국적군은 전후의 신수도 형성에 여념이 없습니다. 온 세계가 제3인주역명을 맞아 새로운 국제질서확립을 창출하여 세계판도를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이때, 우리도 이 시대정신과 국제조류에 따라 남북한의 협력과 새로운 차원에서 조국통일의 길을 마련토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중차대한 혁명적 분기점에서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너와 내가 따로 있어

역할을 할때가 되면 그때는 문명의 중심지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지나 한국과 일본·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찌기 동방의 밝은 등불로 비유했던 내 조국에 새로운 인류적 차원에서의 중차대한 임무가 맡겨지는 절호의 기회가 눈앞에 다가오는데 우리는 오늘 그날을 위하여 과연 무엇을 생각하며 또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통일된 앞날의 민주조국을 바라보면 그 구상과 예비에 몰두해야 할 때 그것은 고사하고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내탓이다' 하며 서로 미워하고 싸우며 혼란속에 맴돌아서야 되겠습니까?
미래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운명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탓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밝은 미래를 개척하여 빛나는 조국과 내일의 세계를 이루는데 함께 나섭시다.

사랑하는 경희인 여러분!
바로 여기에 여러분의 책무가 있으며 국가의 소망이 있음을 명심하여 새 역사창조의 기수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이 영광된 자리가 있기까지 모든 정성을 다하여 뒷바라지해 주신 여러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따뜻한 찬사를 드리며 모든 졸업생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전경희인과 함께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특 집 故 남현진 열사 의문사 사건

군 권력 본질속에 예정된 죽음

지난6일 한국의국어대학교에서 외국어대생과 용인·성남지역 총학생회연합소속학생 1백50여명이 '故 남현진 열사의 시인규명을 위한 규탄대회'를 갖고 철야농성을 벌였다.

이날 집회에서 '남현진 열사 군입대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의 '경과보고'와 '남현진 열사의 죽음'을 명확히 밝혀달 것을 결의하는 '추구문건'이 낭독됐다.

남현진(외대·영문과88) 열사는 지난해 11월 군입대후 1월24일자 대대처를 받던 11일만인 지난 2월3일 소나무에 목이 매인채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군당국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사체 발견 시간은 사망시간 40분 정도 경과된 시간이었으며, 응급차에 오는 동안 인공호흡으로 입술이 부르트었으며, 심장마사지로 인해 가슴에 멍이 들었다고 발표되었고, 서울대 이인성교수, 정미화변호사, 군법무관, 남현진 열사의 형, 삼촌이 참가한 가운데 육군 병제병원에서 실시된 부검결과 시인은 '질식사'로 판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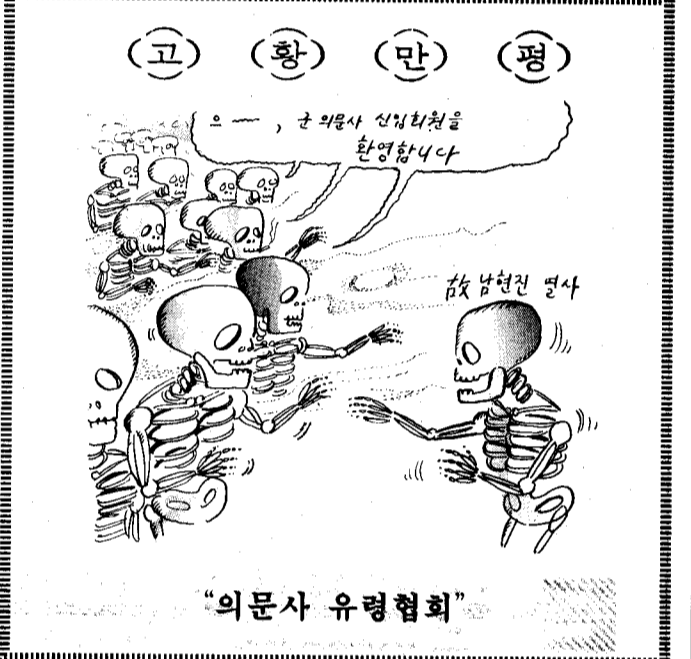
이에 대해 가족과 학생들은 사인에 대한 많은 의문을 제기하며

가족대표 4명, 학생대표 등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했다.

공동조사단은 군당국이 발표한 사건경위에서 남현진 열사 혼연소 퇴소이후 바로 자대배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월14일부터 24일까지의 행적을 알 수 없는 것은 그 기간에 군당국으로부터 프락치 가 될것을 강요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 이유는 혼연소생활과 자대 배치생활사이 에 남현진 열사의 모습이 매우 달라졌

다한 의문사에 어떻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지는 것과 의문실에서는 불과 죽기 몇시간전일에도 불구하고 감기라는 이유로 약을 복용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 이재표(중문·4 본교 수필가 겸 시사평론가)는 남현진 열사의 의문 사함을 밝히는 자리에서 "현정권은 92-93년 권력재편기를 맞아 장기집권구도를 영구화하기 위해 민족민주세력



입대후 프락치 강요 의혹 짙어 유가족·학생 공동조사로 진실 밝힐계획

다한 주위의 증언이 있다는 것이다. 또, 목을 맨 장소까지 일반적으로 군내에서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낮에 혼자 산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도 보조근무병이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다는 데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 일반적으로 신병은 군기를 잡는다는 목적으로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 보통인데 남현진 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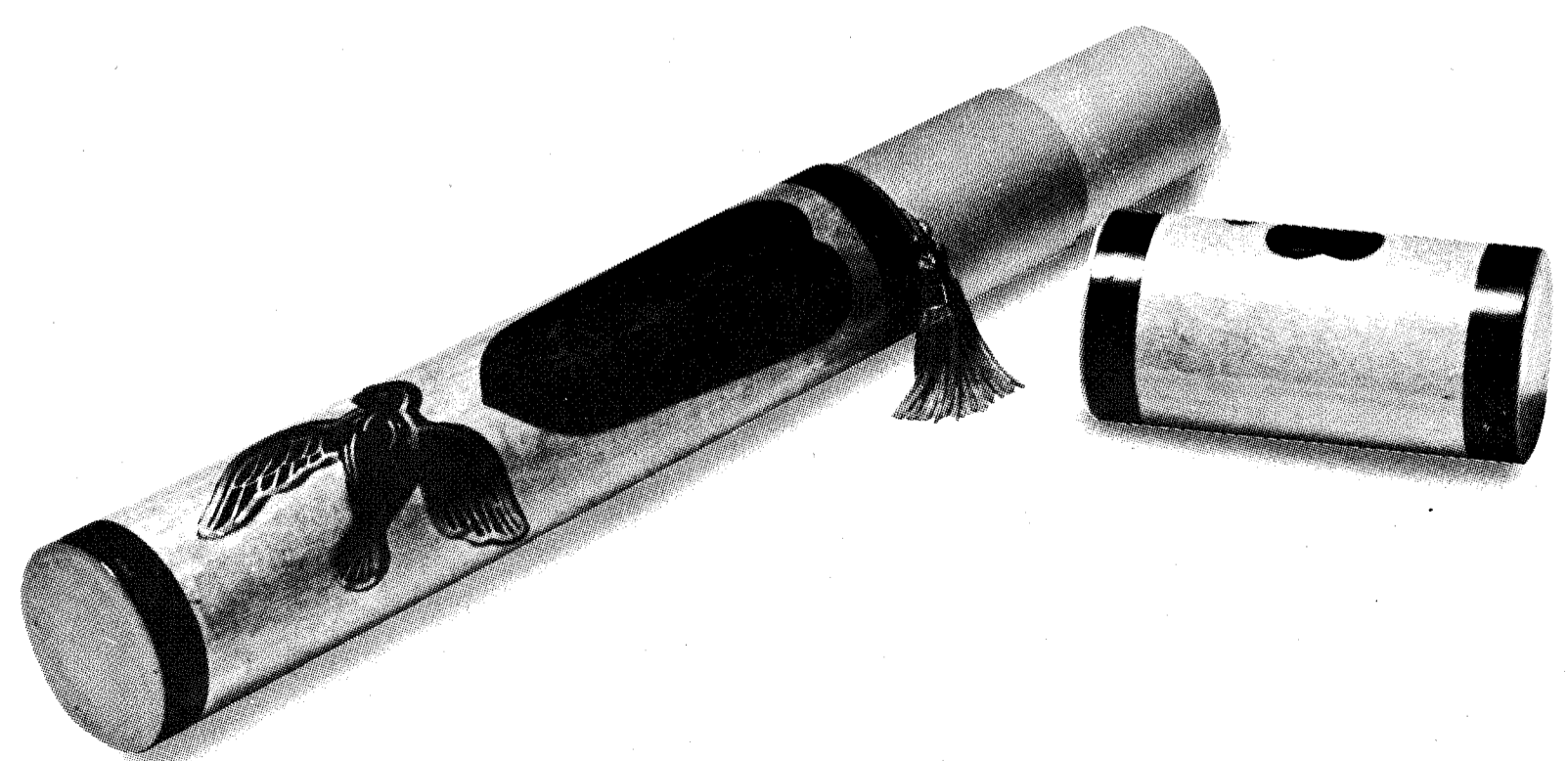
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현정권의 탄압속에서 남현진 열사의 사인을 명확히 밝혀냄으로써 열사의 죽음이 현정세와 정권의 의도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밝혀야한다"고 말했다.

왜 남현진 열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누가 남현진 열사를 죽였는가, 남현진 열사의 죽음은 그 죽음이 설사 자살이었다고 하더라도 남현진 열사에 대한 사전조사와 남현진 열사 이미 이러한 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압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당국이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비인간적 프락치강요는 인권탄압의 단계를 넘어 군에서의 의문사로 나타났고 의문사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탄압이라 하겠다.

예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1월25일 남현진 열사 고철들과의 면담 내용을 보면 '남북 통일추진공동의 적은 누구인가?'는 질문에 '미제국주의자'라는 대답을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질문과 대답이 오갈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이전 에 남현진 열사에 대한 사전조사와 남현진 열사 이미 이러한 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압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당국이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비인간적 프락치강요는 인권탄압의 단계를 넘어 군에서의 의문사로 나타났고 의문사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탄압이라 하겠다.

(이재환 記者)

나에게 띄우는 출사표(出師表)



제갈량이 이웃 나라와의 결전을 앞두고 황제인 유선에게 띄운 출사표. 그 글은 결의와 비장함이 오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읽는 이의 가슴을 서늘케 합니다. 대학 4년을 뒤로 하고 사회 속에서의 자기 실현을 위한 진군을 시작한 사람들... 캠퍼스에서 얻은 것들에 머물러 만족하지 않고 뭔가 큰 족적을 남기기 위해, 자기에게 띄우는 출사표라도 써야할까 봅니다.

졸업 - 인생에 있어 이 한때의 의미가 너무도 소중한기에.

포항제철은 다음 세대의 행복과 다음 세대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